



양용은 골프 월드컵서 일낸다 위창수

국가대항 미션힐스 대회 中서 오늘 개막 동감내기 찰떡궁합...역대 최고성적 자신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메이저대회 챔피언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이번에는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미션힐스 월드컵골프대회(총상금 550만달러, 우승 상금 170만달러)에 출사표를 던졌다.

26일부터 나흘간 중국 선전의 미션힐스 골프장 울라사발 코스(파72·7천320야드)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총 28개국 대표 선수들이 출전해 포볼(1.3라운드), 포섬(2.4라운드)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리는 국가대항전이다.

지난 8월 PGA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태극기가 새겨진 캐디백을 높이 들었던 양용은은 국가대항전인 월드컵골프대회에서 다시 한번 한국골프의 위상을 드높일 기회를 맞았다. 양용은이 월드컵골프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처음이다.

파트너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포볼 또는 포섬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양용은이지만 지난 10월 세계연합팀의 일원으로 미국과 벌이는 프레지던트컵에 출전해 경험을 쌓았다.

양용은의 파트너는 오랫동안 PGA 투어에서 우정을 나눈 동감내기 위창수(37·테일러메이드)다. 위창수는 2006년 대회에 허석호(36)와 함께 출전, 19위에 올랐던 경험이 있어 찰떡 궁합으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양용은은 “위창수와 나는 절친한 친구다. 그동안 수도 없이 연습 라운드를 함께 해 호흡을 맞추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정확한 성적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말했다.

1953년 캐나다컵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이 대회는 1967년부터는 월드컵으로 이름을 바꿔 열리고 있으며 1956년 대회에 처음 출전했던 한국은 2002년 멕시코 대회에서 최경주(39·나이키골프)와 허석호가 공동 3위라는 최고 성적을 냈다.

팀 플레이가 중요한 이 대회에서 23차례나 우승컵을 가져간 미국이 강호로 꼽히지만 최근에는 상위 랭커들이 출전하지는 않았다.

올해도 미국은 PGA 투어에서 통산 2승을 올린 니 와트니와 우승 경험이 없는 존 메릭이라는 20대 영건을 내보냈다.

미국보다는 지난 해 우승컵 가져간 로베르트 카를손과 헨리 스텐슨이 짝을 이룬 스웨덴을 비롯해 잉글랜드(로스 피셔-이안 폴터), 북아일랜드(그레이 맥도웰-로리 매길로이) 등 유럽팀과 호주(로버트 앨런비-스튜어트 애벌비)가 한국의 경쟁 상대다. 뉴질랜드 교포인 이진명(19·캘러웨이)도 데이비드 스메일과 함께 뉴질랜드 대표팀으로 출전한다. 한편 SBS골프채널이 낮 12시30분부터 나흘간 중계한다. /연합뉴스

“내년엔 올해의 선수 되겠다”

LPGA 3관왕 신지애 금의환향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쉽게 놓친 LPGA ‘올해의 선수’에도 도전하겠습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삼관왕, 신인왕, 다승왕에 오르며 화려하게 올 시즌을 마무리한 신지애(21·미래에셋)가 25일 수백 명 팬의 환영을 받으며 금의환향했다.

L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공동 8위에 오르면서 아쉽게 올해의 선수 영광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에게 내 준 신지애는 인천공항에 도착해 “비록 올해의 선수상을 놓쳐 아쉽지만 LPGA 투어에서 프로 1년차로서 제목표는 다 이뤘다”면서 담담하게 말했다.

신지애는 “마지막 대회에서 마무리를 잘 하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좋은 경험을 했으니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웃음을 보였다.

“LPGA 투어 챔피언십에서 다른 한국 선수들이 잘하면서 올해의 선수를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른 선수를 떠나서 내가 실수한 것이다. 골프는 개인 승부고 다른 선수도 최선을 다한 결과일 뿐이다”며 자신의 탓으로 돌렸다.

내년 시즌을 대비해 신지애는 올 겨울 파워 트레이닝에 주력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지난 3.4년은 밸런스 트레이닝을 많이 했는데 올 시즌 뛰면서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

을 느꼈다”면서 “시즌 막판까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파워 트레이닝에 힘을 쏟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LPGA 투어 신데렐라가 된 신지애는 올 시즌 자신이 이뤄낸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했다.

신지애는 “프로 선수가 돼 LPGA에서 뭔가를 돌아보며 신기하다”며 “불과 5년 전 갤러리로 오초아와 사진을 찍었는데 이젠 선수로 옆에서 있다. 벌써 이 자리까지 왔다”며 놀라워했다.

신지애가 LPGA 투어 챔피언십 대회 중간에 열린 신인왕 시상식 때 입었던 옷과 화장도 화제가 됐다.

“LPGA에서 메이크업과 머리를 해줬는데 모두 예쁘다고 했지만 너무 미국식으로 해줘 내가 보고도 놀랐다”고 속삭여줬다.

시상식 때 입은 드레스도 “미국 매니저가 ‘노출을 하려면 많이 해야 한다’고 사온 것”이라고 털어놓으며 웃었다.

신지애는 다음 달 4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여자프로골프대항전에 출전한 뒤 휴식을 취하고 내년 1월 호주로 전지훈련을 떠날 예정이다. 그는 “한일전에서 제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훨씬 좋은 성적을 내 한국의 우승을 이끌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연합뉴스



미 LPGA 데뷔 첫 해 시즌 3관왕을 이룬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지존 신지애가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금의환향한 뒤 취재진과 팬들을 향해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입도 ‘지존’... 올해 50억원

한국과 호주, 일본, 미국을 중흥무진하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삼관왕을 차지한 ‘지존’ 신지애(21·미래에셋)의 올해 수입은 얼마나 될까?

신지애는 LPGA 투어에서 25개 대회에 출전, 세차례 우승을 포함해 12차례 톱10 입상으로 180만7천334달러를 상금으로 벌어들였다. 25일차 환율로 환산하면 약 20억9천만 원에 이른다.

또한 일본여자프로골프투어(JLPGA)에서 3천740만1천110원의 상금을 받았다. 한화도 환산하면 4억9천만 원. 여기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테크 챔피언십 공동 7위에 오르며 받은 1천950만원과 호주 대회 상금 2천만원을 보태면 상금 수입만으로 26억1천500만원을 벌었다.

올해 초 미래에셋과 메인 스폰서 계약을 맺으며 1년 후원금 10억원을 받은 신지애는 성적에 따른 인센티브 5억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코오롱 등 서브 스폰서들의 후원금 3억원에다 미래에셋이 추가로 주는 보너스까지 더한다면 신지애의 올해 수입은 5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신지애는 지난 달 JLPGA 마스터스 GC레이디스에서 우승한 뒤 부상으로 시보레 스포츠카를 받았다. /연합뉴스

허정무 AFC 올해의 감독

허정무(54)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 지도자로는 6년 만에 아시아축구연맹(AFC) 올해의 감독으로 선정됐다.

허정무 감독은 24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09 AFC 시상식에서 올해의 감독상(남자)을 수상했다.

북한을 1996년 잉글랜드 대회 이후 44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은 김정훈 북한 대표팀 감독, 일본의 4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끈 오카다 다케시 일본 대표팀 감독과 경쟁을 뚫고 올해 아시아 최고 축구 지도자로 우뚝 섰다.

한국 지도자가 AFC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것은 2003년 성남 일화를 이끌고 K-리그 3년 연속 우승의 금자탑을 세웠던 고(故) 차

경복 감독 이후 6년 만이다.

허정무호와 K-리그 FC서울에서 주축 중앙 미드필더로 활약해온 기성용(20)은 AFC 올해의 청소년선수상을 받았다. 한국에서 올해의 청소년선수상을 받은 것은 이천수(2002년), 박주영(2004년)에 이어 기성용이 세 번째다. 한국은 이 밖에도 올해의 남자 국가대표팀상을 받았고, 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우승한 포항 스틸러스와 ‘여자 포청천’ 흥은아 국제심판은 각각 올해의 클럽팀과 올해의 여자 심판(주심)으로 선정됐다.

AFC 올해의 선수에는 J-리그 감바 오사카에서 뛰는 일본 대표팀 미드필더 엔도 야스히토가 뽑혔다.

북한축구협회는 올해의 협회상(남자 부문)을 받았다. /연합뉴스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겸 집행위원인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2009 AFC 시상식에서 허정무 감독과 기성용 등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허정무 국가대표팀 감독(올해의 감독, 사진 왼쪽), 왼쪽 세번째부터 조종현 대한축구협회장, 정몽준 대표, 기성용(올해의 청소년선수), 한승주 2022 월드컵유치위원장, 흥은아 국제심판(올해의 여자 심판), 포항 스틸러스(올해의 클럽팀) 김태만 사장. /연합뉴스

리버풀 챔스예선 탈락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리버풀이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기 탈락했다.

리버풀은 25일(한국시간) 오전 헝가리 데브레첸 올라 가보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챔피언스리그 E조 5차전 원정경기에서 전반 4분에 터진 데뷔 은고그의 선제 결승골로 데브레첸(헝가리)을 1-0으로 제압했다.

그러나 리버풀은 2승1무2패(승점 7)에 머물러 조 2위 피오렌티나(승점 12), 2위 올랭피크 리옹(승점 10)에 뒤진 3위 자리를 유지했다.

리버풀은 32강 조별리그 최종전을 이긴다 해도 리옹에 골 득실, 승자승 원칙에 밀려 순위 뒤집을 수 없다. UEFA 챔피언스리그 32강에서는 각 조 1,2위만 16강에 진출하고 3위는 유로파리그(전 UEFA컵)로 떨어진다.

2004-2005 시즌 우승, 2006-2007 시즌에는 준우승을 차지했던 리버풀은 조기 탈락으로 챔피언스리그 강호의 체면을 구겼다. 리버풀이 16강 진출에 실패한 것은 2003-2004시즌 이후 6년 만이다. /연합뉴스